

晋州 殷烈祠 소장 〈殷烈公 姜民瞻 影幀〉

李 昉 周*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殷烈公 姜民瞻과 殷烈祠
- III. 殷烈祠 소장의 두 影幀
- IV. 『遺像典故』와 기타 강민첩 영정
- V. 나오면서

국문요약

이 글에서 소개할 작품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殷烈祠에 소장된 두 점의 殷烈公 姜民瞻(963~1021) 영정이다. 강민첩은 고려시대의 명장으로 1018년 거란의 蕭排押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침하자 姜邯贊의 副將으로 출전하여 興化鎭에서 적을 대파하였으며, 문종 때 공신각에 오른 인물이다. 範本과 模寫本의 관계로 추정되는 이 두 영정은 右顔八分面의 全身交椅坐像으로 幘頭에 曲領大袖을 입고 양손에 笏을 쥔 고려시대 백관의 공복차림이다. 범본은 絹本에 치밀하고 부드러운 필치와 색채감으로 인물의 傳神을 형상화한 수작인 반면, 모사본은 2폭을 결봉하여 만든 麻本에 두터운 설채와 선묘 위주의 古式으로 묘사되어 후대에 묘사하였거나 또는 묘사 이후 다시 한 번 加彩한 것으로 사료된다. 강민첩 영정은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본, 숙창각본, 두방영당본 등이 전하고 있다. 1790년에 오래된 영정 두 본을 姜世晁이 묘사하였고 채색이 흐려지자 1844년 姜彝五가 영정의 채색을 보충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어 유존하는 작품들 중 강세황의 작품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영정은 경상도 지역에 봉안된 여러 강민첩 영정과 더불어 범본과 모사본의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며, 모사본이 확산되는 과정과 강민첩 영정의 移存 양상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殷烈祠, 姜民瞻 影幀, 範本, 模寫本, 姜世晁, 牛芳祠, 斗芳影堂

I. 들어가면서

본고에서 소개할 작품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殷烈祠(경상남도기념물 제14호)에 소장된 은렬공 강민첨 영정 2점이다.¹⁾ 2005년 10월 은렬공 영정의 문화재지정 신청에 따른 조사과정 중 영정을 모시는 감실의 뒤편에서 또 다른 영정이 말려진 형태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죽자 형태로 상당히 훼손되어 있었으나 고운 비단재질과 화격 높은 필치와 채색상태 등을 살펴보아 감실에 모셔져 왔던 영정의 範本으로 결론지어 이 영정이 시도유형문화재 제453호로 지정되었다.

은렬사에 소장된 模寫本과 모사본의 범본으로 추정되는 감실 뒤편에서 나온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영정 관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殷烈公 姜民瞻과 殷烈祠

殷烈公 姜民瞻(963~1021)은 문무를 겸비한 고려시대의 명장으로서 963년(광종 14년) 11월 29일 진주시 옥봉동 아래 開慶鄉(현 진주시 옥봉동 62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증조부는 諱 宗一, 조부는 諱 極述, 부는 元尹으로서 휘 諱는 甫能이며 모친은 居昌愼弘의 자녀이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志氣가 굳세고 강직한 인물로²⁾ 관료에 뜻을 두기보다는 향리에서 후학교육에 전념하다가 1005년(목종 8년, 43세) 관아의 권유로 문과 제술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고 將仕郎으로 출사하였다. 이듬해 文林郎 都校 令同正, 安邊都護掌書記가 되었다. 1010년(현종 원년, 48세)에 監守鎭將에 제수되었고 그 해 12월에 契丹主가 40만 병력으로 압록강을 건너 西京으로 쳐들어오자 통군독사 趙元과 흠어진 군사를 모아 물리친 바 있다. 1012년(현종 3년, 50세)에 部州防禦使로 승진하였고 5월에 東女眞이 迎日·清河 등지에 쳐들어오자 都部署의 文演·李仁澤·曺子奇 등과 함께 안찰사로서 州郡兵을 독려하여 동여진을 격퇴하였다. 1016년에 內史舍人이 되었으며, 1018년(현종 9년, 56세)에는 거란의 蕭排押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침하자 현종은

¹⁾ 문화재조사 참여의 기회를 주셨으며 영정 관계 연구에 있어 여타 작품과의 연관성을 지적해 주신 이용현 문화재전문위원님과 은렬공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晉州姜氏 殷烈公波 大宗會 姜永安 常任副會長님께 감사드립니다.

²⁾ 安鼎福, 『東史綱目』 第7上, 辛酉年 顯宗 12年.

平章事 姜邯贊을 上元帥로, 대장군 강민첨을 副元帥로 삼아 寧州(平南 安州)에 주둔하게 하였다. 강감찬의 副將으로 출전한 강민첨은 興化鎭에서 적을 대파한 후 개경으로 쳐들어가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慈山에서 대파하였다. 그 공으로 1019년(현종 10년, 57세)에 鷹揚上將軍柱國이 되고, 곧 이어 右散騎常侍에 올라 推誠致理翊戴功臣에 녹훈되었으며 식읍 3백호를 하사받았다. 이듬해(1020년) 3월 知中樞事兵部尙書 겸 太子太傅가 되었고 12월 金紫興祿大夫 벼슬을 받았다. 그리고 현종 연간에 명을 받들어 金猛과 함께 別監使로서 2백여 칸의 巨刹인 奉先弘慶寺³⁾ 건립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1021년(현종 12년) 11월 12일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죽은 뒤에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그의 공로로 아들 玆에게도 祿資를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太子太師와 門下侍郎으로 증직되고 致祭하여 ‘殷烈’로 追諡되었으며 문종 때 공신각에 올랐다.⁴⁾ 현재 그의 묘는 충청도 예산군 대술면 이치리에 위치한다.

은렬사는 강민첨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를 지내는 齋室 그림 1로, 1021년(현종 12년) 진주 개경향에 창건한 후 ‘은렬’로 사액하였다⁵⁾ 1046년 공신각에 강민첨의 畫像을 그려 봉안함으로써⁶⁾ 훗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1609년(광해군 원년)에 후손 姜籤이 本道の 監司로서 이를 중창하였고 1704년(숙종 30년) 진주목사 洪景濂이 다시 중수하였다. 1846년(현종 12년) 鳳谷으로 이전한 후 1871년(고종 8년) 조정의 명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41년에 강민첨의 탄생지인 지금의 위치(경남 진주시 옥봉남동 622)에 재건되었다. 은렬사는 현재 경상남도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강민첨과 관련된 지정문화재는 은렬사 외에도 앞서 언급한 <奉先弘慶寺事蹟碣碑>(국보 제7호)와 강민첨이 문무를 연마하던 터에 세워진 斗芳影堂(경남 문화재자료 제81호), 강민첨이 무예를 연마하고 심었다는 두양리 은

3) 崔冲, 『東文選』 第64卷, 『奉先弘慶寺記』. 봉선홍경사는 1021년(현종 12년)에 창건한 절로 현재 절터에는 절을 세운 지 5년이 지난 1026년 고려시대 유학자 최충이 비문을 짓고 백현례가 글씨를 쓴 <奉先弘慶寺事蹟碣碑>(국보 제7호)만이 남아 있다.

4) 강민첨의 생애에 관해서는 『高麗史』, 『高麗史節要』,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1971,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高麗朝 救國功臣 殷烈公-崇慕碑 建立告由 및 除慕式』(1999, 晋州姜氏殷烈公波 大宗會)를 참조하였다.

5) 『국역증보문헌비고』, 1995, 各道祠院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쪽.

6) 『高麗史節要』 第4卷 靖宗容惠大王 丙戌 12年(1046), “十一月, 制曰, 大中祥符三年, 丹兵, 入寇, 西北面都巡檢使楊規, 副指揮金叔興等, 挺身奮擊, 連戰破敵, 矢集如蝟毛, 구몰진下, 又於大中祥符十一年, 丹兵闖入, 兵部尙書, 知中樞院事姜民瞻, 爲元帥, 鼓譟奮擊, 大敗於盤嶺之野, 丹兵, 奔北, 投戈委甲, 行路隘塞, 民瞻, 乃俘斬萬級, 追念其功, 合行褒獎, 可圖形功臣閣, 以勸後來.”

행나무(시도기념물 제69호),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이치리에 소재한 강민침 장군 묘(재실: 예산재, 충남문화재자료 제319호)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두방영당은 조선 태종 때 賜牌地로 하사받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의 斗芳山, 牛芳山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은령사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朔望禮를 행하고 매년 음력 3월 11일 지역 유림이 주관하여 춘향제를 지내고 있다. 두방영당에서는 음 11월 12일 忌祭祀를 봉행하고 예산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5일 時享을 모신다.

Ⅲ. 殷烈祠 소장의 두 影幀

1. <殷烈公 姜民瞻 影幀> 範本 그림 2·4·5·11·13·15·17

표장비단을 포함한 영정의 전체 크기는 세로 143.1cm, 가로 87.0cm이며 현재 화면은 세로 112.4cm, 가로 51.2cm이다. 발견 당시 죽자형태였으며 배접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었는데 안면 부분, 특히 코등과 왼쪽 무릎, 다리부분의 화면이 찢겨나간 상태였다. 또한 折痕이 많고, 화면 하단 배접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안면의 수염과 왼쪽 뺨 부분의 朱色 幘頭 끈, 의복 옷깃과 소매 끝, 의복 하단의 붉은 끝단, 의자의 검은색과 보라색, 주색부분에는 보필한 흔적이 있다. 그리고 화면 향우측 상단에는 ‘高麗兵部尙書姜殷烈公像’이란 細筆 墨書로 쓴 畫題 그림 4가 보인다.

인물의 모습은 右顔八分面의 全身交椅坐像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足床 위에 두 발을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얹고 있다. 인물의 양 어깨선은 약간 돌아앉은 자세에 걸맞게 왼쪽 어깨가 좀 더 기울게 표현되어 자연스러운 자세를 보여준다. 양손을 모아서 쥐고 있는 홀은 인물의 시선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미치고 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초상화가 左顔 일변도인데 반해 강민침 영정이 右顔인 것은 고려시대 인물인 만큼 고려시대 말기 초상화에서 보이는 취세의 경향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⁷⁾

인물의 복식은 대체로 幘頭에 曲領大袖을 입고 상아홀을 쥐고 있는 고려시대 백관의 공복차림이다. 복두는 모체가 이단으로 각이 저서 올라가고 양각이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는 平脚 복두로 붉은 색 끈으로 턱 아래에서 매듭을 짓고

⁷⁾ 趙善美, 1994, 『韓國 肖像畫 研究』, 悅話堂, 404쪽.

있다. 그리고 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은 녹색의 곡령대수를 입고 그 안에 裏衣를 입은 모습인데, 곡령대수의 경우에 옷깃[衿]과 여밈[衽], 부리[袖口], 도련[裾端]에 붉은 색의 襖을 대었으며 이외의 옷깃과 부리에는 청색의 선을 대었다. 이 異色襖들의 윤곽은 색채보다 한 단계 채도가 낮은 유사색으로 묘사함으로써 음영표현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려시대의 공복차림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복두·곡령대수·帶·靴·홀로 구성 *그림 7·8* 되는 반면 靴가 아닌 주색 운두장식이 있는 烏을 신고 있는 점이나 깃과 수구에 선을 댄 점은 그것과 차이가 있다⁸⁾ *그림 9·10*. 이 같은 현상은 고려시대 인물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거듭 묘사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곡령대수의 衣褶는 먼저 먹선으로 그린 후 그 위에 의복과 동일한 색을 짙게 긋고 의습선 주변으로 얇게 선염하여 음영을 표현하였다. 즉 녹색의 곡령대수의 채색에 먹선으로 의습선을 긋고 그 위에 짙은 녹색선을 그은 후 同色의 선염을 바탕빛보다는 짙게, 그러나 의습선보다는 밝게 하여 의습선을 따라 묘사한 것이다. 그 의습선 위로는 백색의 세선으로 그려낸 문양이 보인다.

顔面은 얼굴을 갈색으로 윤곽을 잡은 후 열은 담홍색으로 施彩하였으며, 윤곽선 주변으로는 윤곽선보다는 열은, 그러나 안면 색보다는 짙은 색상으로 여러 번 붓질을 가하여 暈染氣를 드러냄으로써 음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안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은 약간 어둡게 보이게 함으로써 안면의 요철을 유도하였다. 안면묘사에서는 의지가 굳고 기개가 뛰어난 인물의 性情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묘사력이 돋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의자의 향우측 장식부분이 표구의 라인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는 재표구 시에 화면의 일부를 자르는 과정에서 의자의 장식부분만을 오려 그 형상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표구 이전의 화면 크기는 세로 114.1cm, 가로 58.5cm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고려시대 인물인 만큼 우안의 형식을 취한 점이나 의복이나 홀을 들고 있는 자세 등 고려시대 초상화 양식을 수용하고 있으나 생명감 있는 안면의 사실적 묘사와 뛰어난 색채감각의 의복표현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 초상화의 특징인 사실성과 장식성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인물의 傳神까지도 형상화한 수작이다.

8) 강민침 영정의 복식 양상과 중국 복식 사진자료에 도움을 주신 동아대학교 전혜숙교수님과 류재운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殷烈公 姜民瞻 影幀> 模寫本 그림 3 · 6 · 12 · 14 · 16 · 18

모사본 역시 범본과 마찬가지로 복두에 정장(곡령대수)을 하고 홀을 들고 앉은 우안팔분면의 전신교의좌상으로, 화면은 세로 111.6cm, 가로 65.3cm 이며 화면 안 테두리는 세로 102.5cm, 가로 58.3cm 크기이다. 복두와 곡령대수의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양 소매 끝, 그리고 안면 일부분과 왼쪽 뺨에 두르고 있는 주색 복두 끈, 의자의 장식부분과 족상의 일부분 등에는 보필한 흔적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리 보필한 흔적이 눈에 띄지만 대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도상은 약간 돌아앉은 자세에도 불구하고 양 어깨 기울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 다소 경직된 인물형상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채색은 비교적 두텁게 한 상태이며 안면 윤곽은 먹선과 갈색선으로 묘사하였고 얼굴은 살색으로 채색하였다. 이목구비 묘사에서 上脰線은 먹선으로, 下脰線과 그 외 코·입 등의 윤곽은 갈색이 첨가된 주색으로 묘사하였다. 의습선은 먹선으로 그렸는데 의습선을 따라 선염의 처리는 보이지 않는다. 의자 등받이에는 주색과 하늘색, 연두색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무늬 묘사를 한 장식천이 있으며, 발 아래에는 먹색 윤곽선에 주색 다리와 무늬가 없는 얇은 황토색 상판으로 구성된 足床이 배치되었다.

인물의 복식은 展脚幬頭에 曲領大袖와 裏衣, 烏, 象牙笏을 착용한 점은 범본으로 추정되는 앞의 영정과 유사하나 곡령대수와 이의, 이색선의 색채, 선의 유무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작품은 앞의 작품과는 달리 화면 안에 약간 굵은 주선과 세필의 먹선으로 별도의 테두리를 두른 후 그 안으로 형상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의자의 좌우측 장식의 일부분은 테두리 밖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테두리선 밖으로 의자의 장식이 돌출되게 묘사한 형태는 범본에서의 표구선 밖으로 장식이 돌출된 형태와 동일한 구성방식으로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독특한 도상표현의 유사함은 두 작품의 화면 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범본 바탕견의 가로길이(58.5cm)는 모사본의 테두리선 가로길이(58.3cm)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모사본은 원본과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자 테두리선을 먼저 그린 후 인물 묘사를 하였으나 화면이 협소해 대상을 모두 그릴 수 없게 되자 테두리선 밖으로 묘사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세로의 경우는 범본이 114.1cm(재표구 이전 화면), 모사본이 102.5cm(화면 안 테두리선)로 범본이 약 12cm 정도 길다. 이 같은 차이는 화면 내 인물 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모사본의 인물 신체 길이가 범본에 비해 무척 짧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범본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비단재질인 범본과

는 달리 바탕이 삼베라는 점이며 또 2쪽을 세로로 결봉하여 한 화면을 구성한 점이다(畫面 向左 → 向右 35.0+30.3cm).

이 작품은 안면과 의복 설채가 두텁고 음영 묘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선묘 위주의 古式으로 표현되어 있어 범본을 바탕으로 후대에 모사한 작품으로 간주되며 모사본에 加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遺像典故」과 기타 강민첨 영정

현재 알려진 은렬공 영정은 앞서 소개한 은렬사 소장 두 본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⁹⁾

표 1. 강민첨 영정 목록

소장처	재질	크기 (세로×가로, cm)	시대	비고	소재지
은렬사 범본	견본채색	112.4×51.2	朝鮮	시도유형문화재 제453호	경남 진주시 옥봉동 은렬사
은렬사 모사본	마본채색	111.6×65.3	朝鮮	.	경남 진주시 옥봉동 은렬사
숙청각본	명주에 채색	114.0×50.0	朝鮮	.	경북 금릉군 남면 운남동 숙청각
두방영당본	견본채색	120.0×60.0	朝鮮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방계 내 두방영당
국립중앙 박물관본	지본채색	80.3×61.4	1788年	보물 제588호	국립중앙박물관

은렬공 영정 기록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고려 문종이 즉위한 후(1046년) 은렬공 遺像을 功臣閣에 그려 훗날 사람들에게 권장해야 할 것을 명한 바 있다.¹⁰⁾

‘유상이 두 본 있으니 하나는 麗朝의 공신각에 있었더니 我朝(조선)에 이르러 성균관의 품계로 本孫으로 하여금 편의함을 따라 옮겨 모시라는 명령이 있었고 하나는 州司에 있었으니 고을 사람들이 愛慕하여 살아 있는 모습을 받드는 것과 같이

⁹⁾ 경상남도 진양군 山仰祠에도 영정이 있으나 실견하지 못한 관계로 이 영정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¹⁰⁾ 『高麗史節要』 第4卷 靖宗睿惠大王 丙戌12年.

업속함을 이루었다.’¹¹⁾

이후 1642년(인조 20년)에 주사에 모셔진 영정을 후손 姜大遂(1591~1658)가 화사를 구하여 모사하였다고 한다. 강대수는 인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勉哉·學顔, 호는 春礪·寒沙晚隱이다. 1631년 홍문관 부수찬 겸 검토포관이 되고 1639년 통정대부가 되었으나 1639년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 진주에 살다가 1644년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이 되고 이어서 우승지, 병조참의, 동래부사, 전주부윤이 되어 1년 동안 지냈으며, 홍문관 부제학, 대사간 참관을 역임하였다. 강대수가 진주목사 당시 은령공의 영정을 다시 본뜨고 우방의 옛 사당을 중수하여 사림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정에는 雷溪 俞好仁(1445~1494)의 시가 있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어 추후 작품 발굴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진영(眞影)의 아래에 쓰다.

절관(岳關)에서 북문을 진압하니 지리(地利)로 절악을 비게 했네.

단구(丹寇:거란)가 알을 누르듯이 쳐들어 왔지마는

성오(城烏)로 확확(攖攖)하게 갈기었네.

당당(堂堂)한 칠척(七尺)의 체구였고.

담소(談笑)로 오랑캐 닢을 빼앗았네.

당시에 나라 안에 사람이 없었으니 높은 산에 위태롭기 일발(一髮)의 사이였네.

황옥(黃屋:임금)이 마침내 반정(反正)을 하시든 날

공(公)께서 홀로 서서 주석(柱石)이 되시었네.

공훈(功勳)과 명망(名望)으로 기린(麒麟)에 계셨으니

천고(千古)에 엽엽(燁燁)한 일이었네.

바다 위 분유(粉榆)의 고향에서

사당모습 갖추고서 혈식(血食)을 잡수시네.

떠를 드리우고 홀(笏)을 바로 하니

풍상(風霜)의 절개가 방불(髣髴)하네.

옛 사당에 어느새 황혼(黃昏)이 짙었는데

향화(香火)는 타고 있고 오리는 잠을 자네.

나그네가 여기와서 인상여(隣相如)를 사모하니

요서(遼西)의 먼바다에 고학(孤鶴)이 떠있구나.¹²⁾

11) 『殷烈公姜先生遺史』, 1994, 『遺像』, 晉州姜氏殷烈公波大宗會, 回想社, 138쪽.

12) 번역은 『殷烈公姜先生遺史』, 『遺像典故』(1994)에 의거하였으며, 원문은 『韓國美術史資料集成』

(8)補遺編, 『潘溪集』卷2 ‘姜殷烈公民瞻畫像(秦弘燮, 2002, 一志社, 361쪽) 참조하였다. 유효인

18세기에 이르러 本府 성 밖의 사당과 우방사에 모셔진 영정 2본이 오래되어 희미해지자 후손인 必儒이 1790년 겨울(十月)에 서울로 올라와 進士 姜彝天(1769~1801)의 할아버지인 姜世晁(1713~1791)에게 모사를 의뢰하였다. 은열공 강민침의 17세손이었던 강세황은 7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영정 두 점을 모사하기 시작하였고 庶叔이었던 姜信(1767~1821)이 筆硯의 일을 도와 완성하였다.¹³⁾

강세황은 18세기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대부 문인화가이자 문장가·서예가·평론가로 당시 藝苑의 總帥였던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산수·화조에 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지만 4점의 자화상을 남기고 있어 자의식이 강하면서도 인물화에서도 재능을 발휘하였다.¹⁴⁾ 30대 후반에 그린 任希壽(1733~1750)의 《초상초본화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포함된 자화상, 《靜春樓帖》(개인 소장)에 포함된 두 점의 자화상 소폭 흉상(1766년(54세) 이전), 그리고 1782년(70세)에 그린 전신상이 그것이다. 특히 70세 <자화상> 그림 19은 ‘마음은 山林에 있고 이름은 朝籍에 두고 있다’라고 언급한 自讚文에 밝혔듯이 관모에 烏紗帽를 쓴 채 평상복의 도포차림으로 그려 자신의 현재적 처지와 심증을 적절히 회화화한 작품이다.¹⁵⁾ 강세황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타인의 초상화로는 1761년 강세황이 49세에 그린 <福川吳夫人影幀> 그림 20이 유일한 紀年作이다. 福川 吳氏는 왕실 종친인 密昌君 李穡(1677~1746)의 부인으로, 밀창군의 장남인 李益炡(1699~1782)이 예조판서로 재직할 때 집안과 혼인관계로 친분이 있는 강세황에게 부탁하여 그린 86세상이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묘사력을 바탕으로 선묘와 음영법을 적절히 구사하면서도 이를 절제하여 차원 높은 전신을 구현해 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⁶⁾

강세황은 자화상과 초상화에서 눈 주위의 肉理文과 선묘에 의한 주름 표현, 혼염에 의한 음영효과 등 치밀하고 객관적인 묘사력을 통해 대상을 정확히

은 金宗直(1431~1492)의 문인으로 字는 克己, 號는 潘溪, 林溪이며 高靈人이다. 1462년에 생원이 되고 147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奉常寺 副奉事, 거창현감, 공조좌랑, 춘추관 검토관, 홍문관 교리 등을 거쳐 합천군수로 재직 중 병사하였다. 문장에 이름이 높았고 특히 詩에 뛰어나서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1489년 『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하였고, 1490년에는 『俞好仁詩藁』를 편찬하여 왕으로부터 포상받기도 하였다. 장수의 蒼溪書院과 함양의 藍溪書院에 제향되었다.

13) 『殷烈公姜先生遺史』, 1994, 『遺像典故』 重摹記, 260쪽.

14) 강세황의 회화에 관해서는 변영섭, 1988, 『豹菴 姜世晁繪畫研究』, 一志社.

15) 이태호, 2003, 『조선 후기 초상화의 제작공정과 그 비용』, 『豹菴 姜世晁』, 예술의 전당, 404쪽.

16) <복친오부인영정>의 제작배경과 화풍에 관해서는 尹軫暎, 2006, 『강세황 작 <福川吳夫人影幀>』, 『강좌미술사』 제27호, 259~282쪽.

그러나 면서도 내면의 인품이나 인격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전신을 구현해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 78세에 그가 모사한 강민첩의 두 영정 역시 이 같은 완성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약 150여년이 지난 후 이 영정들이 다시 채색이 호려지자 1844년 헌종 갑진년에 敎官 姜師碩이 주관하여 姜彝五(1788~1857)가 영정의 채색을 보충하였다.¹⁷⁾

강이오는 강세황의 손자이자 1790년 영정 모사 당시 옆에서 필연의 일을 도왔던 강신의 아들로, 자는 聖淳(聖淳), 호는 若山·留堂이며, 무과에 등제한 후 군수를 지냈다 그림 21. 그는 매화와 산수에 능하였으며 특히 金正喜((1786~1856)와 申緯(1769~1847)는 그의 매화 그림을 보고 書卷氣와 雅趣가 그윽하다고 평하였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江岸舟遊圖>, <松下望瀑圖>(국립중앙박물관소장)에서는 담백하고 맑은 남종화풍이 엿보인다. 강세황과 강이오는 당대의 사대부화가로 그림에도 남다른 자질을 보이기도 했지만 <북천오부인 영정>의 제작배경을 감안해 볼 때 강민첩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선조의 영정을 모사 또는 가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강민첩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경남 하동 斗芳齋 내 斗芳影堂의 연혁을 살펴보면 영정의 重模와 移存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⁸⁾ 우선 1352년(공민왕 원년) 9세손 忠貞公 司空이 牛芳祠를 중수하고 歲祀를 모시면서 진영을 봉안하였고, 조선 태종 때 斗芳, 牛芳 두 산을 賜牌地로 받아 관리하였다. 그런 후 1642년(인조 20년)에 후손 대수가 이 영정을 중모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주사가 바로 우방사인 것이다. 1777년(정조 원년) 영당을 두방산으로 옮긴 후 두방영당이라 하고 齋祠를 두방재라 하였으며 門을 澤流門이라 하였다. 1825년의 재실 중수를 거쳐 1869년(고종 6년)에는 영당을 휘철당해 영정을 은렬사로 옮겼으나 은렬사도 1871년 곧 휘철되자 영정은 斗陽村舍에 봉안하였다. 1872년(고종 9년) 조정에서 편이 봉안하라는 교지에 따라 사당을 우방산 행단 뒤편에 세우고 영정을 還奉安하였다. 그런 연후 1889년(고종 26년)이 되자 두방산의 옛 터에 다시 영당을 옮겨 짓고 영정을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1920년 7월 肅淸閣을 세운 후 두방영당에 감장했던 영정을 한 본 옮겨 모셨고 1954년 산양사를 세우고 또한 두방영당에 감장했던 영정 한 본을 옮겨 모신 기록¹⁹⁾을 미루어 예전에 두방영당에 두 점의 영정이 있었음을 미루어

17) 『殷烈公姜先生遺史』, 1994, 『遺像』, 138쪽.

18) 앞의 책, 『斗房影堂』, 136~137쪽.

19) 앞의 책, 『肅淸閣沿革』·『山仰祠沿革』, 380쪽.

집작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그림 22은 우방사에 있던 원본을 1788년 晋州兵使로 있던 李延弼이 화사 朴春彬에게 옮겨 모사하도록 한 것이다.²⁰⁾ 작품 상단의 화기에 의해 제작 경위가 명확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을 제외하고라도 강세황이 그린 두 점의 강민첨 영정을 명확히 밝혀내기는 힘들다.²¹⁾ 현존하는 영정들이 가채를 한 흔적이 있으며 영정의 移存에 대한 기록이 일관되지 않은 까닭에 이 점에 관해서는 추후의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5점의 영정 중 은렬사 감실 뒤편에서 발견된 은렬사 범본이 탁월한 묘사 감각과 회화성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역작으로 당대의 기량이 뛰어난 화원이 그린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강민첨 영정들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여겨진다.²²⁾

두방영당본 그림 23과 숙청각본 그림 24, 은렬사 모사본의 경우 은렬사 범본에 비해 신체 비례가 짧아진 점이나 흘을 낀 손의 위치, 의복의 트임새와 의습선, 족좌대의 형태, 의자의 모양 및 다리 하단의 채색무늬 표현, 녹색과 주색으로 이루어진 의자 등받이의 장식문양 등 여러 부분에서 서로 유사한 표현양식을 보여 주면서도 은렬사 범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작시기 추정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두방영당본과 숙청각본,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본의 안면 표현에 있어 윤곽선 주변으로 선염에 의한 음영법이 보이는 반면 은렬사 모사본은 안면 설채가 두텁고 선묘에 의해서만 의존하고 있어 모사 이후 일정

20)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제30권 慶尙道 晋州府, “牛山 주 서쪽 65리에 있다. 지리산의 남쪽 기슭인데 형상이 소가 엮드린 것과 같으므로 이름한 것이다. 고려 때의 장군 강민첨이 이 산에다가 牛房·茅房의 두 절을 창건하였는데 모방에는 민첨의 화상이 남아 있다.” 현재 진주 牛山에 있는 모방사에 있다가 이 상이 이모되기 전 어느 시기에 우방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 晋州姜氏諱民瞻圖像/ 高麗光宗十四年癸亥生辛/ 西卒享年五十九乙巳文科乙/ 科崔冲榜下以討破契丹功/ 題壁上三韓第一功臣女眞來/ 侵公以副元師偕姜郟贊計/ 之轉推誠致理翊戴功臣金/ 紫興祿大夫兵部尚書兼太子/ 太傅上柱國天水縣開國男/ 食邑三百戶贈諡號殷烈公麗/ 史列傳曰公起自書生射御非/ 其所長然志氣剛果屢立戰/ 功遂能顯達墓在忠清道禮/ 山甘泉洞影嶺在晉州治西牛/ 芳寺春秋享祀

按公生癸亥爲宋太祖乾德元年/ 距今戊申爲八百二十六年/ 戊申十月晉州兵使李延弼使/ 畫師朴春彬移摹送寄于淮(淮)陽冊舍

22) 어느 강민첨 영정을 보고 찬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 문인 成近默(1784~1852)의 강민첨 화상찬이 전한다. 『果齋集』卷6 高麗兵部尚書姜殷烈公民瞻畫像贊, “奕奕乎豐顛之月漢, 晃晃乎炯眸之電爍, 番番良士之氣, 剛果稟完, 休休雅儒之儀, 忠信學博, 冕雍容乎廟堂之高, 蓋臣嘉猷之襄國政, 轟軼奮迅乎兵塵之漲, 元戎雄威之□胡魄, 微管髮被, 有范膺落, 百世報禋凜然肅薄”(秦弘燮, 1996, 『韓國美術史資料集成』(4) 朝鮮中期 繪畫編, 一志社, 647쪽 재인용)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가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소장본을 제외하고 인물이 녹의를 입고 있는 점이나 은렬사 범본과 은렬사 모사본의 인물이 象牙笏을 쥐고 있는 반면 숙청각과 두방 영당의 인물은 木笏을 쥐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고려시대에는 960년(광종 11년) 3월 元尹 이상은 紫衫, 中壇卿 이상은 丹衫, 都航卿 이상은 緋衫, 小主簿 이상은 綠衫의 4색 공복제를 정했다.²⁵⁾ 자삼 이상은 품계 기준, 나머지는 관직을 기준으로 하며 문무반과 잡업으로 나누었는데, 무반은 모두 丹色임이 특징이다. 게다가 『高麗圖經』에 보면 庶官(6품 이하의 하급 관원)의 복색은, 綠衣(서관의 옷은 袍라 하지 않고 衣라 하였다)에 목홀을 들고, 복두를 쓰고, 검은 靴(烏靴)를 신고, 進士로 입관한 때로부터 省曹의 補吏나 州縣의 令尉²⁶⁾·主簿(각 관아의 종7품·종8품의 주부 벼슬인 듯함)·司宰(司宰鑑의 벼슬인 듯함) 등이 다 이를 입는다.

또 조선시대 문무관의 관복제도에 관해서는 태종 10년 8월에 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태종 16년 1월에는 관복색을 설치²⁵⁾하여 문무관의 조복제도를 마련하였고, 『洪武禮制』에 의하여 梁冠과 衣裳과 佩綬를 만들게 하였으며, 세종은 세종 8년 2월²⁶⁾ 『두씨통전』, 『문헌통고』, 『산당고색』, 『대명집례』 등 중국고서를 참조하여서 문무관의 조복·제복·공복·상복을 제정하였다. 이를 표²⁷⁾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25) 『高麗史節要』 2卷 光宗 11年, “定百官公服, 元尹以上, 紫衫, 中壇卿以上, 丹衫, 都航卿以上, 緋衫, 小主簿以上, 綠衫。”

26) 州縣의 令尉: 주현의 으뜸 벼슬아치. 『高麗史』 卷七五에 “문종 18년 8월에 모든 州·牧의 刺史·通判과 縣의 令尉·長吏 등의 실적과 백성의 고락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리를 보내어 조사했다” 하였다.

27) 『太宗實錄』 卷31 16年1月13日(丙午).

28) 『太宗實錄』 卷31 8年2月26日(庚寅).

27) 류재운, 2005, 『조선 건국초 대명관계와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3쪽.

28)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七 冠服, “庶官之服 綠衣 木笏 幘頭 烏靴 自進士入官 省曹補吏 州縣令尉 主簿司宰等 悉服之.”

표 2. 조선시대 문무관 공복 비교

分類	制定年度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冠	朝鮮 世宗8年	幘頭									
	明 洪武14年	烏紗帽									
	明 洪武26年	幘頭(漆紗爲之,展角長一尺二寸)									
服	朝鮮	太祖1年	紅袍	青袍			綠袍				
		世宗8年	紅袍	紅袍 (正3品以上) 青袍 (從3品以下)	青袍			綠袍			
	明	洪武14年	團領衫								
		洪武26年	盤領右衽袍 用紵紗或紗羅絹 袖寬三尺								
			緋色			青色			綠色		
	帶	朝鮮	太祖1年	犀帶	荔枝金帶	黑角帶					
世宗8年			犀角帶	荔枝金帶	荔枝金帶 (正3品以上) 黑角帶 (從3品以下)	黑角帶					
明		洪武14年	玉帶	花犀帶	金銀花帶	素金帶	銀鍍花帶	素銀帶	烏角帶		
		洪武26年	玉帶 花或素	犀帶	金荔枝帶		烏角帶				
笏		朝鮮	太祖1年 世宗8年	牙笏			木笏				
		明	洪武26年	象牙笏				槐木笏			
靴	朝鮮	太祖1年 世宗8年	阜靴								
	明	洪武26年	阜靴								

위 표에서 보면 1401년(태조 1년) 공복제도를 제정했는데, 1·2품은 홍포·여지금대·상홀, 3·4품은 청포·흑각대·상홀, 5·6품은 청포·흑각대·목홀, 7·8·9품은 녹포·흑각대·목홀이었으며, 이때 제정된 공복제도는 세종대를 거쳐 다시 한 번 세종 8년 때 제정되나 태조 원년과 거의 동일하며, 이후 『經國大典』 卷三 『禮典』에서도 7·8·9품은 綠袍를 착용하고 목홀을 든다고 하였으니 서로 유사하다. 이로 볼 때 『고려도경』이나 송대 관복제도, 조선시대의 관복제도에서 공통되게 7품 이하는 녹포에 목홀을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1품 태자태부에 오른 강민첨의 품계와 복식에는 그 차이가 있으며 또한 녹포에 상아홀을 든 은렬사 범본과 은렬사 모사본의 인물이 상아홀을 쥐고 있는 것 역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송대의 관복제도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나오면서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은렬공 강민첨의 영정은 지금까지 1975년 보물 제588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해 알려져 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정조 12년 10월이라는 제작시기와 제작경위가 書記로 기록되어 있고 비록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고려시대 인물의 초상화가 희귀한 실정에서 고려시대 공신상의 형식과 표현양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한 은렬공 강민첨 영정은 은렬사에서 모시면서 향사를 모시던 영정 한 점과 감실 뒤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영정 한 점으로, 이 두 작품은 범본과 모사본의 관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문화재 조사과정 중 발견된 은렬사 범본은 2007년 3월 시도유형문화재 제453호로 지정되었다. 은렬사 범본은 비단재질에 세밀한 필치와 단아한 채색상태, 유연한 음영표현 등 수준 높은 묘사력이 돋보이며 지기가 굳세고 강직한 인물의 전신을 구현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은렬사 모사본은 麻本에 음영을 배제한 선묘 위주와 채색으로 후대에 모사하였거나 또는 모사 이후 가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영정은 국립중앙박물관소장본과 경상도지역에 봉안된 숙청각본, 두방영당본 등과 더불어 범본과 모사본의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며, 강민첨 영정의 제작배경과 이모 및 봉안 과정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史書 · 文集 및 辭典

『高麗史』

『高麗史節要』

成近默, 『果齋集』

安鼎福, 『東史綱目』

俞好仁, 『潘溪集』

崔冲, 『東文選』

李肯翊, 1966,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1971, 민족문화추진회.
 金榮胤, 1974, 『韓國書畫人名事典』, 藝苑社.
 『芥子園畫傳』, 1980, 綾城出版社.
 金英淑 編著, 1988,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殷烈公姜先生遺史』, 1994, 晋州姜氏殷烈公波大宗會, 回想社.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역증보문헌비고』, 199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高麗朝 救國功臣 殷烈公-崇慕碑 建立告由 및 除慕式』, 1999, 晋州姜氏殷烈公波
 大宗會.

단행본 및 논문

- 崔淳雨, 1971, 『姜豹菴』, 『考古美術』 제110호.
 『韓國繪畫』, 1972, 『韓國名畫近五百年展圖錄』, 국립중앙박물관.
 李東洲, 1975, 『우리나라의 옛 그림』, 博英社.
 『韓國繪畫』, 1977, 『國立中央博物館所藏未公開繪畫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안희준, 1977,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신동향』, 『考古美術』 제152권.
 柳喜卿, 1981,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조선미, 1981, 『韓國肖像畫에 대한 畫論的 접근』, 『美學』 제7호.
 안희준, 1984, 『韓國繪畫史』, 一志社.
 『全國肖像畫調查報告書』, 1987, 문화재관리국.
 변영섭, 1988, 『豹菴 姜世晃繪畫研究』, 一志社.
 柳喜卿, 1989,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趙善美, 1994, 『韓國 肖像畫 研究』, 悅話堂.
 秦弘燮, 1996, 『韓國美術史資料集成』(4) 朝鮮中期 繪畫編, 一志社.
 李泰浩, 1998, 『조선시대의 초상화』, 『미술사연구』 제12호.
 홍선표, 1999, 『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吳世昌, 2001, 『국역 근역서화징』, 한국미술연구소기획, 시공사.
 강관식, 2001, 『조선시대 초상화의 圖像과 心像』, 『美術史學』 15, 한국미술사교육
 연구회.
 秦弘燮, 2002, 『韓國美術史資料集成』(8) 補遺編, 一志社.
 조선미, 2002, 『조선 후기 중국 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 『美術史論壇』 제14호.
 『역사인물초상화대전』, 2003, 현암사.

- 『豹菴 姜世晁』, 2003, 예술의 전당.
- 박용만, 2003, 『안산시절 강세황의 교유와 문예활동』, 『豹菴 姜世晁』, 예술의 전당.
- 李泰浩, 2003, 『조선후기 초상화의 제작공정과 그 비용』, 『豹菴 姜世晁』, 예술의 전당.
- 류재운, 2005, 『조선 건국 초 대명관계와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6, 『조선시대 영정의 모사본 제작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尹軫暎, 2006, 『강세황 作 <福川吳夫人 影幀>』, 『강좌미술사』 제27호.
- 조선미, 2006, 『명·청대 초상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시대 초상화의 성격』,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그림 1. 은열사, 경상남도 기념물 제14호, 경남 진주시 옥봉동



그림 2. <殷烈公 姜民瞻 影幀> 범본, 시도유형문화재 453호, 絹本彩色, 112.4cm×51.2cm, 은열사 소장



그림 3. <殷烈公 姜民瞻 影幀> 모사본, 麻本彩色, 111.6cm×65.3cm, 은열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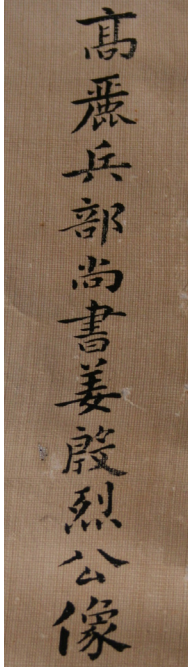


그림 4. <姜民瞻 影幀>
범본 화제



그림 5. 은렬사 범본 부분도



그림 6. 은렬사 모사본 부분도



그림 7·8. 宋代 官服 - 展脚幞頭, 大袖袍



그림 9. 靴



그림 10. 馬



그림 11. 은렬사 범본 부분



그림 12. 은렬사 모사본 부분

www.kci.go.kr



그림 13. 은렬사 범본 부분



그림 14. 은렬사 모사본 부분



그림 15. 은렬사 범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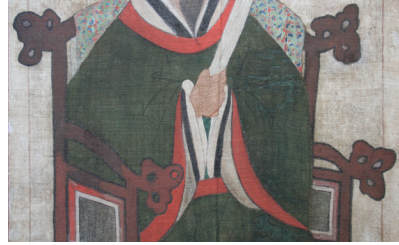


그림 16. 은렬사 모사본 부분



그림 17. 은렬사 범본 부분



그림 18. 은렬사 모사본 부분



그림 19. 姜世兪, <自畫像> 1782년, 보물 제 590-1호, 絹本彩色, 88.7cm×51.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0. 姜世兪, <福川吳夫人 影幀>, 1761년, 絹本彩色, 79.0cm×60.0cm, 개인 소장

www.kci.go.kr



그림 21. 李在寬, <姜彝五 肖像>, 보물 제 1485호, 絹本彩色, 63.9cm×40.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2. <殷烈公 姜民瞻 影幀>, 1788년, 보물 제588호, 紙本彩色, 80.3cm×61.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3. <殷烈公 姜民瞻 影幀> 絹本彩色, 120.0cm×60.0cm,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방재 내 두방영당 소장



그림 24. <殷烈公 姜民瞻 影幀> 명주에 채색, 114.0cm×50.0cm, 경북 금릉군 남면 운남동 숙청각 소장

Portraits of Gang Min-cheom enshrined in Eunryeolsa Temple in Jinju

Lee, Hyun-Ju

This paper presents two portraits of General Gang Min-cheom(963~1021) enshrined in Eunryeolsa Temple in Jinju City (Gyeongsangnam-do Province). Gang Min-cheom was a great general during the Goryeo Period. When So Bae-ab invaded with an army of 100,000 soldiers, he went to war with another great general, Gang Gam-chan and defeated the enemy completely at Heunghwajin. During the reign of King Munjong, his memorial tablet were enshrined in the Gongshingak, the memorial for meritorious retainers. The two portraits are assumed to be the original copy and a copy from the original. The figure in the portraits is seated in full length and looking at the left side. And the sitter wears an official uniform of the Goryeo Period and Bokdu, an official hat that was given to the person who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holding a mace in both hands. The original copy is an excellent artwork that captured the sprit of the figure through fine and gentle brush strokes and impressive color effects on the silk canvas. On the other hand, the copy was drawn on the two pieced hemp canvases, presenting the old style that centered on thick brushes and lines. The copy is assumed to be copied in later times or to be retouched afterwards.

There are other copies of the portrait that handed down to: the one from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ukcheong-gak and Dubangyoung-dang. It has been documented that Gang Se-hwang copied two portraits in 1790 and Gang-yio retouched to color some worn parts of the portraits. So the possibility that Gang Se-hwang's works are among the existing ones cannot be ruled out.

The two portraits in question are valuable as data in ligh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copies that are enshrin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I hope the outcome of the present paper will be a step toward a further study of the trend, that is,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copies and transfer of the copies.

Key words: Eunryeolsa Temple, portrait of Gang Min-cheom, original copy, copy from the original, Gang Se-hwang, Ubangsa Temple, Dubangyoung-dang